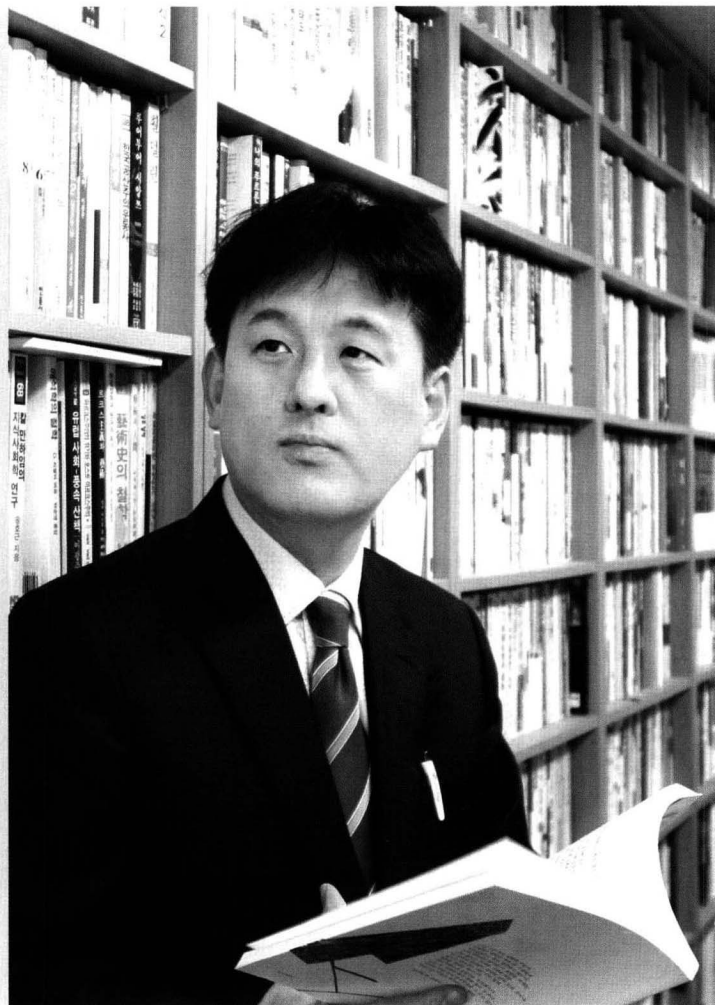


문학평론가 권성우

**'비평가는 논쟁의 상처 통해 성장'
비평 체험 담은 《논쟁과 상처》 펴내
권력과 이해관계서 자유로운 글쓰기 고민**

지난 1999년부터 2002년 사이 한국 문단에서는 이른바 '문학사적 논쟁'이라 지칭될만한 중요한 논쟁들이 일어났다. 배타적인 문학권력, 문학상 제도, 주례사 비평, 이문열, 서정주, 안티 조선 등이 그 때 제기된 주제들이었다. 문학평론가 권성우 교수는 그 논쟁에 치열하게 참여했던 이들 중 한 명이다. 문단의 고질적인 병폐인 주례사 비평과 패거리주의에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며 아웃사이더 기질을 보여 줬던 그이기에 문학 논쟁에 참여한 것이 새삼스런 일도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인신공격성 비난을 받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최근 권 교수는 그 때의 기억과 체험들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썼던 글들을 묶은 《논쟁과 상처》(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라는 책을 냈다. 제목처럼 '논쟁'과 '상처'를 담은 솔직한 글들에선 비평가의 정체성에 대한 치열한 사유와 자기 성찰을 엿볼 수 있다.



비평가, 섬세한 자의식과 문제의식 가져야

“개인적으로 어떤 시기보다도 열정적으로 글을 썼으며, 적극적으로 논쟁에 개입해 편향적인 문학제도와 행태에 대해 적극적인 비판을 시도했죠. 동시에 커다란 상처를 받기도 했고, 생각을 같이하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글을 쓰는 한, 영원히 그 시절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는 《논쟁과 상처》의 머리말에서 ‘상대의 신랄한 공격에 상처를 받기도 했고 논쟁적 글쓰기가 지닌 엄청난 마력에 가슴 설레기도 하면서, 스스로의 비평적 관점과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지금에 와서 권 교수는 “아직도 때로는 그리운 나의 비평적 고향을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파란만장했던 시기”를 기억하며 “논쟁의 상처를 통해서 비평가는 진정으로 성장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

권 교수는 비평가로서 자신의 문제 의식이 타고난 기질 탓이라고 했다. 불합리한 관행을 볼 때 불편함을 느끼

고 정의에 대해 갈구하는 그 기질이 글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다. 그는 대학교 1학년 때 김현·김윤식 선생의 강의를 통해 시나 소설이 도달할 수 없는 독특한 비평 에세이의 매력에 빠진 이후로 흔들림 없이 문학평론가의 길을 걸어 왔다. 그에겐 ‘비평가는 공정하고 정직하고 자유로워야 한다’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문학 권력, 출판사들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한국 문단의 현실은 늘 안타까움으로 다가온다.

“비평가는 섬세한 자의식과 개성이 있어야 합니다. 왜 평론을 쓰는가에 대한, 자신만이 쓸 수 있는 고유한 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격렬했던 논쟁 이후 3년여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는 좀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난 논쟁들을 평가하려고 한다. ‘문학 권력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문학 권력 논쟁의 성과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언론이나 사람들이 논쟁을 양비론으로 몰고 가는 것이 심각한 문제죠. 논쟁을 할 때는 입장을 정확하게 관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신공격이 오갈 정도로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중에도 그 치열함이 왜 생길 수밖에 없었는가,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논쟁에 격렬하게 임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상처를 입게 되어 있다. 권 교수는 상처를 ‘비평가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통과 제의’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정직하고 공정한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한다면 결국 사람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이라는 소신이 있었기에 치열한 논쟁들 가운데서도 떳떳할 수 있었다고. 그는 “사람들은 좋은 말을 듣기 원하지만 비평가는 그것으로부터 거리를 뒤야 소신 있는 비평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례사 비평·거대 언론, 문학 위기 가속화

권 교수는 주례사 비평이 현재의 문학 위기를 가속화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주례사 비평은 주류가 생산한 비평에 대한 순응과 추인 역할을 함으로써 작가에게서 실천적 갱신의 기회를 빼게 됩니다. 결국 작품의 질이 하향평준화 되어 독자의 외면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작품 자체에 대한 애정을 갖고 순수하게 격려하는 것은 필요하나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 최근 등장한 젊은 비평가 예꼴에서 작은 변화의 기운을 읽고 있다. <비평가 전망>, <작가와 비평>, <크리티카> 등의 젊은 비평 집단에게서 권력과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공정한 비평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문학을 억압하고 타락하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거대 언론을 지적했다. 80년대에 문인을 억압한 것이 정치권력이었다면 지금은 언론이 신흥 권력으로 행세하고 있다. “문학의 본질은 ‘자유’ 이기에, 문인은 거대 언론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언론에 기고하는 필자로서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해마다 많은 신규 출판사들이 생겨나고,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에서 창작 지원을 해주는 등 작가들을 위한 환경이 좋아지고 있지만, 그 만큼 소설의 질적인 측면이 담보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덧붙였다.

“옛날에는 책을 한 권 낸다는 게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작가들이 출판사로부터 퇴짜를 맞고 자기 성찰과 퇴고 과정을 거치면서 작품에 많은 정성을 들였지요. 요즘엔 책 내기가 훨씬 쉬워졌지만 그만큼 작가나 평론가의 자아 성찰의 기회는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학의 대중화’가 양날의 칼로 작용해 제대로 된 문학성, 예술성을 담보하는 것이 힘들어진 현실인지라 작가와 평론가들의 치열한 자기 관리가 더 요구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신춘문에 심사를 하면서 갈수록 역사·사회적인 주제가 줄어들고 개인적인 소재를 다루는 경향을 발견하게 된다고 했다. 기발한 소재, 대중문화적인 상상력이 넘치는 반면, 밀도 깊은 작품들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 “새로운 맥락에서 역사성, 사회성을 더 섬세하게 다루는 접근이 시도되어야 하는데 소재의 새로움에만 함몰돼 아쉽습니다. 최근엔 너무 가벼운 쪽으로만 치우치는 추세죠. ‘진정한 다양성’에 대한 문제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론과 실천이 일치하는 비평 추구

시간 강사 시절을 거쳐 전임 교수가 된지 12년째인 권 교수에게 강단은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중요한 창구다. 요즘 젊은이들이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문화적 구조와 분위기의 영향이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학생들을 행복한 문학의 길로 이끄는 것이 선생이 할 일”이라며 “실제로 접근법을 제시해주면 관심을 갖고 문학의 맛을 알아가는 학생들이 많다”고 전했다.

요즘 쉬운 글쓰기가 하나의 유행이 되고 있지만, 문학 평론가로서 권 교수는 무조건 ‘대중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대중을 의식한 비평이 과연 바람직한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글쓰기가 필요하겠지만, 비평가에게는 인문학적 사유, 사상과 지성의 깊이가 요구됩니다. 또 다양한 비평은 해석학적 충돌을 일으켜 사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비평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는 앞으로도 과거의 논쟁이나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이해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비평을 계속해나갈 생각이다. 자신의 아이디 ‘노마드’가 뜻하듯, 제도권 안에 있지만 늘 유목민의 문제의식을 갖고 새롭게 창조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면서 살 것이라고 했다.

“고민하면서 성장해가는 비평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다양성을 함께 획득하고 싶습니다. 사상의 깊이가 있으면서도 현실을 직시하는 예리함을 갖춘, 이론과 실천이 동떨어지지 않는 그런 비평가를 꿈꾼다고나 할까요.” **한문**

취재_김희희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